

<동산에서 일어난 일② 장면+대화>

요한복음 20장 11-18절 말씀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졌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